

클라우드 통합구매시스템

구매의 앞단을 *NTOPS* 시스템 안으로.

구매요청부터 정산까지 — 구매 부서의 업무 전 과정을
하나의 흐름으로 잇습니다.

SOURCING · BIDDING · CONTRACT · ORDER · SETTLEMENT



지금 무엇이 문제인가

P.01 — 구매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



어떻게 달라지는가

P.02 — 7단계 · ERP와의 관계



무엇이 다른가

P.03 — NTOPS를 고르는 여섯 가지



어떻게 도입하는가

P.04~05 — 제공 형태 · 도입 절차

대기업 구매시스템을 20년 구축해 온 회사가 만든 SaaS입니다. 구축형에서 검증된 업무 체계를 그대로 옮기되, 서버도 IT 인력도 없이
쓰실 수 있게 했습니다.

(주)엔씨시스템 NC SYSTEM

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, 오피스동 3층 306호

www.ncsys.co.kr · sales@ncsys.co.kr

Total Procurement Solution

2026 EDITION

THE PROBLEM

구매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

구매시스템 검토는 대개 **이 중 하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** 시작됩니다.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, **일이 시스템 밖에서 돌고 있어서** 생기는 문제들입니다.

① 견적을 메일로 돌립니다

업체마다 따로 보내고, 회신을 받아 엑셀에 옮겨 비교합니다. **업체가 늘수록 담당자의 시간이 그대로 늘어납니다.**

② 왜 그 업체인지 근거가 없습니다

비교표는 담당자 PC에, 협의 내용은 메일함에 있습니다. **감사나 내부통제에서 선정 근거를 요구받으면 그때부터 찾기** 시작합니다.

③ 계약서가 흩어져 있습니다

워드로 주고받고 날인 후 스캔해 폴더에 넣습니다. **어느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는** 담당자가 바뀌면 함께 사라집니다.

④ 협력사 정보를 대신 입력합니다

등록도 갱신도 구매팀이 받아 적습니다. **정작 정보의 주인은 협력사인데**, 우리 인력이 타이핑에 쓰입니다.

⑤ ERP에는 발주부터 있습니다

무엇을 살지, 누구에게 받을지, 얼마가 적정한지를 **정하는 과정은**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.

공통점

다섯 가지 모두 **"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가"가 기록되지 않는다**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. 구매는 결정의 연속인데, 그 결정이 메일과 엑셀에 흩어져 있습니다.



NTOPS는 이 결정 과정을 시스템 안으로 옮깁니다. 구매요청 · 견적 · 전자입찰 · 전자계약 · 발주 · 납품/검수 · 정산을 하나로 이어, "이 발주가 어느 요청에서 나왔고 왜 이 업체를 골랐는가"에 **클릭 몇 번으로** 답할 수 있게 합니다.

WHAT IT DOES

구매 부서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

통합구매시스템은 "무엇을 · 누구에게 · 얼마에 살 것인가"를 정하고, 그 결정을 집행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. 아래 일곱 단계가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메일 · 엑셀 · 전화로 흩어져 있습니다.

단계	지금 (시스템 밖)	NTOPS 안에서
① 구매요청	현업이 메일·구두로 요청, 취합은 엑셀	요청 등록 → 승인 → 소싱 담당자에게 자동 배정
② 견적 · 입찰	업체별로 메일 발송, 회신을 손으로 비교	협력사가 직접 포털에 제출 · 자동 비교표 · AI 분석
③ 전자계약	워드 파일 주고받고 날인 후 스캔	템플릿에 데이터 자동 채움 → 온라인 서명 → 보관
④ 발주	발주서를 만들어 메일 첨부	계약 단가 자동 적용 · 승인 후 협력사에 즉시 전달
⑤ 납품	전화로 일정 확인	협력사가 납품 등록 · 지연 건 자동 알림
⑥ 검수	종이 검수서, 이력은 담당자 머릿속	검수 등록 · 협력사 평가로 연결
⑦ 정산	월말에 엑셀로 대사	검수 완료분 전표 자동 생성 · 지급 관리

 핵심은 단계가 아니라 "이어져 있다"는 것입니다. 구매요청 번호가 견적 · 입찰 · 계약 · 발주 · 검수 · 전표까지 하나로 따라갑니다. 그래서 "이 발주가 어느 요청에서 나왔고, 왜 이 업체를 골랐는가"에 클릭 몇 번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— 감사 대응이 쉬워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

☞ ERP가 있는데 왜 필요한가 — 가장 많이 받는 질문

ERP가 담는 것 발주 이후 — 발주 · 입고 · 대금 · 회계 처리. 이미 결정이 끝난 뒤의 기록입니다.	NTOPS가 담는 것 발주 이전 — 무엇을 살지, 누구에게 받을지, 얼마가 적정한지를 정하는 과정과 그 근거입니다.
--	---

ERP를 대체하지 않고 연계합니다. 발주 정보를 ERP로 넘기거나, ERP의 품목 · 사용자 정보를 받아옵니다.

 파는 일도 합니다. 유희설비 · 폐자산 매각입찰을 같은 엔진을 뒤집어 제공합니다 — 사는 쪽은 최저가, 파는 쪽은 최고가 낙찰입니다.

WHY NTOPS

NTOPS를 고르는 여섯 가지 이유

기능 목록만 보면 구매시스템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. 아래는 **실제로 쓰실 때 차이가 드러나는** 여섯 가지입니다.

💛 협력사 포털이 무상입니다

협력사가 직접 로그인해 견적을 내고, 입찰에 참여하고, 납품을 등록합니다. **계정 비용이 0원**이라 업체를 많이 부를수록 유리합니다 — 경쟁이 곧 절감입니다.

🔧 전자입찰이 진짜 입찰입니다

라운드형 · 시간제 × 지명 · 공개에 낙찰방식 6종. 라운드마다 시작가가 내려가고 순위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. **매각(최고가)**까지 같은 엔진으로 처리합니다.

📄 전자계약이 내장입니다

별도 전자서명 솔루션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. 쓰던 워드 계약서를 그대로 올려 템플릿으로 만들고, 태그 자리에 실제 데이터가 채워집니다.

📊 역할마다 다른 대시보드

임원 · 구매전략 · 구매담당 · 현업 · 전산 · 협력사 **6종**이 각각 다른 화면입니다. **별도 BI 도구 없이** 경영 보고가 끝납니다.

🌟 AI가 업무 화면 안에

견적 비교, 계약 리스크, 협력사 분석을 **그 화면에서 바로** 돌립니다. 회사명 · 사업자번호 등은 보내기 전에 자동 마스킹되어 AI 도입 심사를 통과합니다.

🌐 한 · 영 · 중 · 일

메뉴 · 상태값 · 화면 문구가 모두 번역되어 있습니다. **중국 협력사는 중국어로**, 구매 담당자는 **한국어로** 같은 입찰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.

✂ 그 밖에 기본 포함되는 것

승인 프로세스

구매요청 · 계약 · 발주 · 정산

문서 출력 10종

인쇄 · PDF · 출력 이력

협력사 평가 · ESG

등급 자동 산정

문서 열람권한

건 단위 통제

모바일 PWA

앱 설치 없이

자동화 배치

마감 · 집계 · 알림

단가계약 · 예산

발주 시 자동 적용

통합검색

업무 문서 13종

그룹웨어 결재연동

표준 API 제공



설명보다 화면이 빠릅니다. 30일 무료 체험으로 실제 화면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— 계약이나 견적 없이, 협력사 화면과 입찰이 진행되는 장면까지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OW IT IS DELIVERED

제공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

공용 SaaS와 전용 SaaS 중 하나를 고르시고, 여기에 온보딩이 붙습니다. 두 SaaS는 기능이 완전히 같고, 서버를 함께 쓰느냐 따로 쓰느냐만 다릅니다.

구분	① 공용 SaaS	② 전용 SaaS	③ 온보딩
무엇	표준 클라우드를 여러 고객이 함께 사용	고객 전용 서버 · 전용 DB로 분리	시스템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
기능 차이	없습니다 — 완전히 같은 제품입니다		기준정보 이관 · 교육 · 연계 · 설정
요건 대응	설정으로만 코드 수정 불가	설정 + 커스터마이징 가능	요건을 표준 · 설정 · 개발로 분류
도입 속도	즉시 계정 발급	서버 준비에 1~2주	2~6주 (기준정보 상태에 좌우)
누구에게	대부분의 중견 · 중소기업 기본 권장	보안 · 감사 요건이 강한 곳 데이터 분리를 요구하는 곳	전 고객 필수 범위만 다름
과금	월 구독료만 (규모에 따라) 온보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		일회성 · 유상 (요청 범위에 따라)

③ 온보딩에 들어가는 것

기준정보 이관

부서 · 사용자 · 품목 · 협력사 · 단가계약
을 엑셀 워크북 한 권으로 적재

정책 설정 · 계약서 템플릿

승인선 · 낙찰방식 · 코드값 · 쓰던 워드
양식 태그 매핑

사용자 교육

구매담당 · 협력사 대상

ERP 연계 · 커스터마이징

실투입 기반 · 커스터마이징은 전용
SaaS 한정

* 공용 SaaS라도 기준정보 이관 · 교육 · 연계는 구독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— 요청 범위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. 직접 하실 수 있는 항목은 가이드를 드리고 비용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.



보안 때문에 클라우드가 곤란하시다면 전용 SaaS를 먼저 검토해 보십시오. 전용 서버 · 전용 DB 격리에 감사로그 5년 보관과 SSO가 함께 포함되므로, 대부분의 보안 요건은 자체 구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됩니다.



요건은 세 가지로 나눠 검토해 드립니다 — ① 이미 표준에 있음(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) · ② 설정으로 가능(승인선 · 낙찰방식 · 계약서 양식 · 코드값 · 화면 라벨 · 다국어는 전부 설정입니다) · ③ 개발이 필요. ③은 전용 SaaS에서만 가능합니다 — 공용 SaaS는 모든 고객이 같은 코드를 쓰기 때문입니다.
요건 목록을 주시면 세 가지로 분류해 회신드립니다. 경험상 개발까지 가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.

🚫 제공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

회계 · 재무 원장 / 인사 · 생산

구매 도메인 밖 — ERP 대체 아님

전자세금계산서 외부 발행

자체 전표 관리까지만

SMS 발송 · 서버 이중화

제공하지 않음

금융 · 방산 등 규제 산업

외부 클라우드 제약 — 구축형으로 안
내

ONBOARDING

도입 기간은 무엇을 얻느냐에 달립니다

표준 기능만 도입하시면 개발 기간이 없어 2~6주면 됩니다 — 이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**품목 · 조직 · 협력사 자료의 정리 상태**입니다. 다만 연계나 특화 기능 개발이 필요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.

표준 기능만

2~6주 · 공용 SaaS · 설정으로 대응

+ 전용 SaaS

1~2주 추가 · 전용 서버 준비

+ ERP · SCM 연계

규격 확정 · 개발 · 테스트 추가

+ 특화 기능 개발

요건 확정 · 개발 · 검수 추가

※ 실제 사례 — ERP 연계와 특화 개발(30MD)이 함께 있던 건은 **착수~오픈 약 3개월**. 요건을 받아 **확정 일정을 제안서에 명시**해 드립니다.

표준 도입 5단계

단계	무엇을	준비해 주실 것
1	킵오프 · 범위 확정	도입 범위 · 사용자 수 · 협력사 수
2	기준정보 적재	부서 · 사업장 · 사용자 · 품목그룹 · 소싱담당자 · 품목 · 협력사 · 단가계약 8종 엑셀
3	정책 설정	승인선 · 낙찰 방식 · 계약서 양식 · 코드값 — 화면에서 설정합니다
4	협력사 초대	협력사 담당자 연락처 — 시스템이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
5	교육 · 오픈	구매담당 · 협력사 대상 교육 후 운영 시작

※ 구축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— 사용을 시작하신 다음부터입니다.

? 자주 묻는 질문

ERP가 있는데 왜 필요한가요?

ERP는 **발주 이후**를 담습니다. 그 **앞단**이 메일·엑셀에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. ERP와 연계하며 대체하지 않습니다.

협력사도 비용을 내나요?

내지 않습니다. 협력사 포털 계정은 무상이며, 협력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
일부만 먼저 써도 되나요?

됩니다. **견적 · 입찰 · 계약**으로 시작해 이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.

우리 데이터는 안전한가요?

업무 데이터의 **권리는 고객사에 귀속**됩니다. 계약 종료 시 지정하신 서버로 **10일 이내 반환**하고 당사 보유분은 파기합니다.

다음 단계

③ 30일 무료 체험

계약이나 견적 없이 **실제 화면**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

④ 시연 요청

업종에 맞춘 데이터로 **1시간 시연**을 진행해 드립니다

⑤ 견적 요청

사용자 수 · 협력사 수만 알려 주시면 산출해 드립니다문의 · 견적 요청 — 주식회사 엔씨시스템 · sales@ncsys.co.kr담당 영업 **이길성 이사** · 연락처 **010-2373-9100**www.ncsys.co.kr상세 기능은 **제품소개서(48p)**로 안내드리며, 요금은 **견적서**로 제시드립니다.